光州日報

제1813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8월 9일 (음력 7월 9일) 토요일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 中國 100년 염원 이루다

한국선수단 입장 8일 밤 8시(현지시각·한국시각 밤 9시)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인 '궈자티위창(國家體育場)'에서 열린 제29회 베이징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선수단이 태극기를 든 기수 장성호를 앞세우고 176번째로 입장하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25개 종목 267명의 태극전사와 임원 122명 등 총 389명을 파견했다. /연합뉴스

'60억 제전' 베이징 올림픽 개막

한국 '金10·10위' 목표 … 오늘 사격 김찬미 첫 金 도전

관련기사 3·6·7·16·17·18·19면

13억 중국인이 100년을 기다렸다는 2008베이징올림픽이 마침내 성대한 막을 올렸다.

8일 밤 8시(한국 시각 밤 9시·이하 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시 북쪽에 조성된 올림픽 주경기장 '궈자티위창'(國家體育場)에서 전 세계 100여개국 정상들과 9만1천여명의 대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이 열려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아시아에서는 도쿄(1964년)와 서울(198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는 역대 최다인 205개국에서 1만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28개 종목에 걸린 금메달 302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을 슬로건으로 하는 베이징올림픽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인 중국이 근·현대사의 질곡을 넘어 세계의 한복판에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막식 행사는 8일 오후 5시45분부터 28개의 중국 전통공연이 진행돼 분위기를 띄우며 시작됐다. 오후 7시56분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부시 미국 대통령 등 100여개국 정상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카운트다운을 시작, 지구촌 최대의 이벤트인 올림픽 개막행사가 진행됐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중국의 찬란했던 과거와 현재, 휘황찬란한 미래를 알리는 공연을 벌인데 이어 그리스 선수단부터 205개국이 차례로 입장했다. 한국 선수단은 중국이 표기하는 국명 간체자의 첫 글자 획순에 따라 176번째로 주경기장에 들어섰다.

1만 500여 명에 이르는 선수와 임원들이 그라운드에 입장한 후 류치 베이징올림픽조직위(BOCOG) 위원장의 환영사,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개회 선언을 했다. 지난 3월24일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출발했던 베이징 성화가 점화되자 개막행사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성화 점화자는 왕년의 남자체조 스타 리닝(李寧·45)이었다.

한편 한국선수단은 9일 전남여고 출신 김찬미(19·기업은행)가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어 박태환은 10일 오전 10시21분 자신의 주종목인 자유형 400m 결승에 출전,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린다. 이날 오후에는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박성현·윤옥희·주현정이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러-그루지야 전쟁 돌입

남오세티아共 영토 분쟁

그루지야와 그 자치 영토인 남오세티아 공화국 간 영토 분쟁이 결국 그루지야와 남오세티아를 지원하는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8일 그루지야 수도 트빌리시에서 25km 떨어진 바지아니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루지야 관리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사상자는 없지만 건물 수채가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군 병력과 탱크 등 군 장비가 남오세티아 수도 츠힌발리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그루지야는 이날 3시간 동안 한시적 휴전을 선언한 뒤 자신들이 장악한 츠힌발리에서 여성들과 어린이 등 민간인들이 모두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남오세티아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사실상 전쟁 발발을 인정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남오세티아 영토 내 러시아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또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 역시 "러시아 전투기들이 그루지야 영공에 침입, 민간인 마을에 대해 폭격을 가했다"면서 "우리의 국경선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국민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군비행장 조기 이전

광주시 '추진단' 구성

광주시가 광산구 공군비행장(제1전투비행단)의 조기 이전을 위해 가칭 '군용비행장 이전추진단'을 구성한다. 〈관련기사 4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8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영진, 강운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6명과 함께 '2009년 국비 지원요청 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광주 발전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군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군용비행장 이전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김동철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추진단 구성계획을 수립해 설립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 결과 이미 내정된 공군비행장 이전 부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혀 광주공군비행장의 타지역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박 시장은 이어 "국방부가 (이전 대상지인) 전남도와 무안군의 반대 여론과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공항이 이전될 경우 광산구 도산동, 송정1동, 신흥동과 서구 마륵동 등 이 일대 주민 1만 5천여 명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7대 문화권 가운데 '교육문화권'으로 지정된 군비행장 부근인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시는 '군용비행장 이전추진단'의 조기 출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병록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광주시로서는 공군비행장 이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업이지만 전남도와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안 가결

KBS 이사회가 8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5면〉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른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 사장의 해임은 해임권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11명의 이사 중 해외출장 중인 이춘발 이사를 제외한 10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표결을 거쳐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른 해임제청 및 이사회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